



NXP, 도버 마이크로시스템의 최첨단 사이버보안 기술을 향후 임베디드 플랫폼에 도입

2018년 10월 11일 - NXP 반도체는 향후 임베디드 플랫폼에 도버 마이크로시스템의 최첨단 코어가드(CoreGuard™) 사이버보안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센트리 프로세서(sentry processor)로 알려진 코어가드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IP로,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소프트웨어 취약성과 네트워크 기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엣지 디바이스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악용 가능한 취약성을 만들어 낸다. 코어가드 IP는 호스트 프로세서와 파이프라인, 디코더, 실행 장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며 소프트웨어 악용에 대한 방어를 제공한다.

코어가드 IP의 주 기능은 호스트 프로세서가 가져온 명령이 마이크로폴리시(micropolicies)라 불리는 사전 정의된 보안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폴리시를 위반하는 명령이 있을 경우, 코어가드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해당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막고, 호스트 운영 체제에 이를 알려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손상을 사전에 제거한다. 코어가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NXP의 보안 실행과 신뢰 보장, 변조 방지의 기반을 완벽히 보완한다.

도버 마이크로시스템 소개

도버의 기술 개발 역사는 2010년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진행한 'CRASH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되었다. CRASH는 핵 원심분리기를 겨냥한 스텍스넷(Stuxnet) 공격에서 착안한 프로젝트로,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미 정부 프로젝트였다. 2015년 코어가드 기술은 드레이퍼(Draper) 사에 편입되어 개발이 진행되었다. 2017년 도버 마이크로시스템은 이 혁신적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선스를 갖고 드레이퍼에서 분사했다.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 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시큐어 커넥티드 카, 엔드 투 엔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션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 는 60 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 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7 년 매출은 미화 92 억 6 천만불이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